

“경차·준중형 세단 소폭 올라…기아 모닝 1.7% ↑”

●중고차 플랫폼 ‘첫차’ 3월 중고차 시세 분석

세단 부문 현대차 올 뉴 아반떼 유일 상승 더 뉴 그랜저 IG 인기 시들…SUV 내림세

중고차 플랫폼 ‘첫차’가 2024년 3월 중고차 시세를 분석했다. 성수기 시즌으로 진입하며 경차, 준중형 세단 위주로 가격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첫차는 중고차 시세 분석을 위해 지난 2월11~20일 판매량이 가장 높았던 중고차 모델 10종을 국산·수입으로 나눠 선정했다. 그 중 2021년식 이후 주행거리 8만km 이하 매물의 대표 등급 데이터를

를 기반으로 산출한 시세다. 매해 3월은 중고차 성수기로 통한다. 인사 채용과 승진, 이사, 입학 등으로 차량 수요가 증가하면서 시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 여파로 지난 달까지 평균 2%대로 하락하던 국산 중고차 시세는 약보합세에 그치거나 일부 모델을 중심으로 소폭 상승하고 있다. 국산차의 경우 기아 모닝 어반이 3월

2024년 3월 중고차 판매시세 / 출처: 중고차 플랫폼 ‘첫차’ 데이터센터

순위	브랜드/모델	중고차 시세	전월 대비
1	카니발 4세대(KA4)	2,480~3,250만원	▲
2	K 쏘렌토 4세대(MQ4)	2,360~3,150만원	▲
3	올뉴 G80	3,690~5,299만원	▲
4	올 뉴 아반떼(CN7)	1,450~2,090만원	▲
5	팰리세이드	2,720~3,460만원	▲
6	더 뉴 레이	890~1,350만원	▲
7	k5 3세대(DL3)	1,749~2,499만원	▲
8	GD 더 뉴 그랜저 IG	2,199~3,050만원	▲
9	모닝 어반	799~1,240만원	▲
10	GV70	3,890~5,090만원	▼

에 접어들며 1.7% 상승했다. 기아 더 뉴 레이 또한 0.8%로 비교적 완만한 하락세를 보였다. 실용성과 경제성 모두 우수한 경차는 별첨 수요가 급증하는 경향이 있어 더 뉴 레이의 시세는 점차 해

등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달 열선 시트, 스마트키 등이 포함된 프레스티지 등급 기준으로 모닝 어반은 최소 799만원부터, 더 뉴 레이에는 800만원부터 구매가 가능하다.

세단 부문에서는 현대차 올 뉴 아반떼(CN7)가 유일하게 상승했다. 올 뉴 아반떼(CN7)는 특히 사회초년생 관심이 높은 모델로 이달 0.8% 가량 소폭 오르는 추세다. 반면 더 뉴 그랜저 IG 시세는 25 익스클루시브 등급 기준 5.5% 하락했다. 동일 시기에 풀제인지로 상품성이 대폭 개선된 K8, 저렴한 가격대로 탄탄한 구매층을 보유한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 그랜저 IG 등으로 수요가 분산돼 더 뉴 그랜저 IG의 인기가 시들해

진 까닭이다. 한편 국산 SUV·RV는 대부분 내림세다.

기아 카니발 4세대(KA4)는 디젤 9인승 프레스티지 기준 2.2% 하락했다. 쏘렌토 4세대(MQ4) 역시 소폭 하락했다. 3월 수입 중고차 중에서는 미니 쿠파 3세대가 3.8%로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첫차 관계자는 “봄철 성수기 시즌을 맞아 가격 접근성이 좋은 경차, 준대형 세단부터 중고차 시세가 조금씩 오르고 있고 연말 프로모션 이후 1~2월 내내 하락 곡선을 그렸던 수입차 시세 역시 반등했다”며 “유동적인 시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고차 구입 전 가용 예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입차 시세는 모델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판매량 상위권을 차지한 독일 3사 준대형 세단 중 시세가 하락한 모델은 벤

츠 E-클래스 5세대다.

E250 익스클루시브 기준 2.1% 하락해 최저 3천900만원부터 5천200만원 사이에 거래되고 있다. BMW 5시리즈 7세대는 2.1%, 아우디 A65세대는 2.2% 상승했다. 3월 수입 중고차 중에서는 미니 쿠파 3세대가 3.8%로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첫차 관계자는 “봄철 성수기 시즌을 맞아 가격 접근성이 좋은 경차, 준대형 세단부터 중고차 시세가 조금씩 오르고 있고 연말 프로모션 이후 1~2월 내내 하락 곡선을 그렸던 수입차 시세 역시 반등했다”며 “유동적인 시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고차 구입 전 가용 예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재만기자



텀블러 13개 제품 비교해봤더니... 서울YWCA 생명운동팀이 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에서 텀블러 13개 제품을 비교한 시험결과를 발표했다. 보온·보냉 성능, 사용 편의성은 형태별(준밀폐형, 밀폐형), 제품별 차이가 존재했고 시험대상 제품 모두 안전성 및 표시기준을 준수했다. 또 스테인리스 제조 시 사용되는 연마제도 세척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립뉴스

“스마트테크브릿지’ AI 매칭·검색 개선 등 필요”

광주·전남중기청, 중기 기술거래 플랫폼 시스템 리뷰단 발표회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중기부)은 5일 “중소기업 기술거래 플랫폼 ‘스마트테크브릿지’의 고도화를 위해 시스템 리뷰단의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스마트테크브릿지는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2022년 12월 구축한 플랫폼으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사용자 맞춤 기술 및 연구기관 추천, 기술 이전 시 특허청 유효서류로 인정 가능한 전자계약 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실제 사용자 경험 확인과 편의성·활용도 등 개선을 위해 기술거래 분야 전문가와 스마트테크브릿지 활용도가 높은 사용자 등으로 리뷰단을 구성해 지난 2월 한달간 활동했다. 리뷰단은 ‘AI 매칭·검색 개선’과 ‘신규기능’ 등을 제안했다. 주요 개선 의견으로 키워드 노출 횟수 기준 추천 방식에서 핵심 키워드에 가중치를 적용해 정확도를 높이고 결

과에 대한 지속적 학습을 통한 매칭률 개선을 제안했다. 또, 기술검색 시 특허분류코드(IPC) 기반이었던 필터 조건에 ‘업종·제품·서비스’ 등을 추가해 맞춤검색결과 제공 필요성을 제시했다. 신규 기능으로 ▲예상 기술가격 및 거래여부 등 정보 ▲급부상 기술군에 대한 분석·추천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지원 사업 추천을 요청했다. 중기부는 제안된 사항을 반영해 2025년까지 스마트테크브릿지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정은솔기자

광주은행, K리그 돌풍 광주FC 40억 ‘통 큰 후원’

올 시즌 선전 기원…든든한 후원자 자처

광주은행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K리그 상승세를 타고 있는 광주FC에 거액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광주은행은 5일 “지난 2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광주FC의 홈 개막전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노동일 광주FC 대표이사, 고병일 광주은행장이 참석해 가운데 광주FC의 2024 시즌 선전을 기원하며 후원금 40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단)

이번에 전달된 후원금은 광주FC가 지난해 창단 이래 역대 최고 성적을 내며 구단 사상 처음으로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따낸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후원금 30억원과 2024년 광고 후원금 10억원을

더해 총 40억원을 전달해 지역 스포츠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자처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물질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선수들의 선전을 응원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광주은행 임직원 400여명이 개막전에 참석해 열띤 응원을 펼쳤으며, 열띤 응원에 힘입어 이날 경기는 광주FC가 FC서울을 상대로 2대0 완승을 거두며 승리의 기쁨을 지역민과 함께 나눴다.

또한, 이날 개막전에서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홈개막을 알리는 시축을 진행했으며, 2024 광주FC 유니폼을 제1호로 구매하며 그 의미를 더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광주은행의 끊임없는 지역사랑은 금융기관으로



서의 역할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금융을 넘어 지역 스포츠 분야까지 영역을 확대하며 지역경제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방면으로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지역과 함께 상생발전할 수 있는 광주·전남 대표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 /임재만기자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 청년 농업인 모집

한국농어촌공사는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 농업인의 시설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공사 소유의 농지에 내재해형 연동형 비닐온실(스마트팜)을 설치한 뒤 청년 농업인에게 최대 20년간 장기 임대하는 것을 골자로 스마트팜 전문교육을 마치고도 농지와 시설확보에 어려

움을 겪고 있는 청년 농업인 이 스마트팜 영농창업을 할 수 있게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농업인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과정을 수료했거나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2년 이상 운영한 사람 등이다. /임재만기자

에너지 절약 및 청정문화 확산 캠페인

겨울철 에너지절약 실천요령

- 3월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 20°C 유지하기
- 3월 뽕뽕이, 커튼으로 틈새 열 손실 줄이기
- 4월 내복, 무릎담요 등 온(溫)맵시 실천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갖는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장이면서 인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사·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여수 앞바다 싱싱한 해산물이 풍부한

교동시장

◎ 장이 서는 날 ◎ 매일

- 이용시간 : 05시 ~ 14시
- 휴 무 일 : 둘째, 넷째 일요일

여수 교동시장 풍물거리

여수 교동시장 입구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여수시 YEOSU SI

문의 : 062)650-2099